

# 행복한 책 읽기

## 최문희 '난설현' <다산책방 권>

한 시인이 부조리한 현 정부 체제에서는 시를 쓰지도 발표하지도 않겠다고 절필선언을 했다. 명작은 난세(亂世)에 나온다는 말을 떠올리다가 문득 '어디 시를 문자로만 쓰겠는가, 온 몸으로 쓸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의 절필선언은 많은 작품을 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허난설현하면 세 가지 한(恨)을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여자로 태어난 것, 조선에서 태어난 것, 김성립의 아내가 된 것이다. 한은 문학적 자양분이 된다. 난설현이 쓴 시가 방 한 칸 분량은 적혀져 있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죽음에 임박한 난설현은 자신이 쓴 시를 모두 불태워버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것은 편협한 사대부들이 지배하는 조선에 자신의 작품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것 같다. 또한 난설현의 시는 중국을 통해 일본에도 전해져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때문에 말 만들기 좋아하는 호사자들은 난설현을 한류의 시조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책은 저자가 '작가의 말'에서 역사소설이나 평전이 아니라고 밝힌 듯이, 단순히 허난설현에 대한 일대기를 다룬 것이 아니다. 주제할 수 없는 시인의 감성을 가진 난설현이라는 한 여자의 이야기다. 저자는 섬세한 필치와 상상력으로 난설현을 재탄생시켰다.

## 짧은 생애 불꽃처럼 살다간 허난설현

는 난설현 식의 시위였는지도 모른다. 그때 난설현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대부분 소실되었으니, 우리로서는 나름의 댓가를 치른 셈이다.

허균은 누나가 친정에 두고 간 작품과 자신이 암송하고 있는 작품을 묶어서 '난설현집'을 펴냈다. 그것을 명나라에서 온 사신들에게 보였는데, 모두가 경탄했다고 한다. 당시 사신 주지번은 '난설현집'의 목판본을 중국으로 가지고 가서 '허난설현집'을 냈다.

이렇게 중국에 알려지게 된 난설현의 시는 중국인들의 애송시가 될 정도로 사랑을 받았다. 지금도 중국 국립도서관에서 난설현의 시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 난설현에 대한 중국인들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

이 책에 나오는 난설현은 머리에 화관을 쓰고, 이슬을 머금은 풀밭을 맨발로 걸어 다니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탈을 즐긴다.

그동안 규정문화, 짧은 생애를 비극적으로 살다간 여류시인, 흥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나 등 난설현에 대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 책 속의 난설현을 만나고 나니, 그림이 확실히 그려지는 느낌이 든다. 난설현의 한은 당시 시대 상황이나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천재란 필연적으로 시대와 불화할 수밖에 없었기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사고와 뛰어난 능력 때문은 아니었을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는 모습을 발발발발이라고 한다. 요즘 많은 소설들이 성큼성큼 걷는 것처럼 단숨에 읽힌다. 그러나 이 책은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바느질하듯이 써내려가 촘촘하다. 그래서 발발발발 걷는 것처럼 천천히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정이

199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자

# PEACE MUSIC Festival

## 예술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평화를 노래합니다

### 제1회 광주평화음악제

- 개막초청 '땀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26일
- 국악 '평화 빛는 가락' 27일
- 동요 '다 다르다' 28일
- 프린지 '소곤소곤 노래소리' 29일
- 폐막 '평화 한그릇' 30일



'광주, 평화를 노래하다.'

음악인, 미술가, 문인,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모여 평화를 이야기한다. 제1회 광주평화음악제가 오는 26일부터 30일(매일 오후 7시30분)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과 사직동 음악의 거리 카페에서 열린다.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광주평화음악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윤장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평화, 멈출 수 없는 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공연 입장료는 따로 받지 않고 책으로 대신하며 모아진 책들은 제주강정 평화책마을로 보내진다.

대중음악, 국악, 동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 이번 5일간의 축제에서는 매일 평화를 주제로 한 창작곡을 만날 수 있다. 또 매회 각기 다른 연출가가 공연을 기획하며 미술가들이 무대 영상물을 선보인다.

26일 개막공연은 광주 대표 브랜드 '김원중의 달거리'를 초청했다. 수익금을 북한 아이들을 위한 빵공장에 보내온 테라평화를 주제로 한 이번 음악제와 어울리는 조합이다.

'멈추지 않으리 평화의 노래' (연출 김원중)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 소프라노 유형민, 프롤로그 등이 공연하며 '강정평화책마을 심만대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시인 김선우와 가수 이상은이 초대손님으로 출연한다. 무대영상은 화가 홍성담씨가 맡았다.

27일에는 국악 공연 '평화 빛는 가락'(연출 류형선)이 열린다. 국악 그룹 '그림(The林)'이 '바람소리 숲', '비, 달리다', '나의 첫번째 자전거' 등을 들려주며 오영미(피리), 김한아(가야금), 이왕재(장고)씨가 실내악곡 '나무가 있는 언덕'을 선사한다. 소리꾼 윤진철(광주시립국극단장)씨는 류형선씨가 음악제를 위해 만든 '멈출 수 없는 평화의 노래'를 들려준다. 무대 영상은 이이남씨가 맡았다.



백창우와 굴렁쇠

28일에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보는 동요 콘서트 '다 다르다'가 진행된다.

동요작곡가 백창우씨와 굴렁쇠 아이들이 평화를 주제로 한 창작곡을 선보이며 주홍의 샌드애니메이션과 동요가 어우러진다. 또 지역 출신인 나비연의 노래하는 그림책, 영상시 등이 이어지며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시랑 놀자' 시간도 마련돼 있다.

29일에는 사직공원 음악의 거리 라이브 카페에서 공연이 열린다. 주제는 '소곤소곤 노래 소리'(연출 이금영)로 음향기와 반주기 없는 공연이다. 햇빛촌, 사직골, 꿈의 대화, 트윈폴리오, 돌담, 추억찾기 등 8개 카페에서 박종태·류상오·김태준·강형원·조찬우씨 등이 공연한다.

마지막날인 30일의 주제는 '평화 한그릇'(연출 한보리)이다. 작곡가이자 가수로 활동중인 한보리와 백창우, 김원중, 홍대에서 활동하는 가수 시와, 바다 프로젝트, 느티나무밴드가 평화를 주제로 한 창작곡들을 들을 수 있는 무대로 연극적인 요소를 집어 넣었다. 무대영상은 김영태씨다.

이번 행사의 총감독을 맡은 김원중씨는 "앞으로 평화음악제는 창작곡들을 꾸준히 만들어낼 것"이라며 "평양에도 가고 모스크바, 베를린에서도 평화를 노래하는 음악회를 여는 꿈도 꾸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전우치'가 온다



한여름밤 야외 공연은 여름날의 즐거운 추억 중 하나다.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박윤모)이 광주 금남공원에서 판을 벌인다.

시립극단은 판타지 액션 연극 '전우치(시진)'를 16일부터 3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8시 공연한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밤하늘 나와 공연에서 편안하게 관람하면 된다. 특히 23일 공연 때는 하이트 진로 협찬으로 시원한 맥주를 무료로 마실 수 있다.

'전우치'는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전우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도사가 되기 위해 신비한 길을 찾아 나선 전우치가 탐관오리를 물리치고 약자 편에 서는 것은 기본줄거리는

광주시립극단, 16~31일 금·토 야외공연

미술·무술 접목... 23일엔 생맥주 무료 시음회

같다. 여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 공직자 성희롱, 전재산 29만원 등 주장하는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 등 2013년 대한민국을 풍자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도술을 부리는 전우치와 둔갑술이 뛰어난 구미호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 미술과 무술을 도입했다. 아크로바틱, 마살아트 등을 접목한 액션을 선보이며 현지 마술사 김영신의 지도로 공중부양, 탈출, 신체관통 마술로 어우러진 일루전 매직을 배우들이 직접 선보인다.

김지훈씨가 연출을, 오영복씨가 음악을 맡았으며 이명덕·강원미·이지은·이승현씨 등 15명의 배우가 출연한다. 문의 062-511-27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서비스표등록증**  
상표등록번호: 41-0241299호

# 낙지의 명가 5.18낙지

##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문의** ☎ 061-375-2383  
**HP** 010-6656-0002

상표등록 : 41-0241299호